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16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국내 육성 골드키위 ‘감황’ 특산화 추진-6면	과수연구과	한라일보
○	[기고]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14면(양성년)	농산물원종장	뉴제주일보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일손 부족 대안으로 자리매김-1면	-	제주매일
○	청정 식재료 음식과 한·중·일 맥주의 향연-6면	-	제주매일
○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3면	-	제주일보
○	월동채소 과잉생산 조절 농가에 지원금 준다-6면	-	한라일보

(한라일보: 2024년 4월 16일)

○ 국내 육성 골드키위 ‘감황’ 특산화 추진-6면

국내 육성 골드키위 ‘감황’ 특산화 추진

도농업기술원, 협의체 구성 “시장 조기 진입 위해 운영”

국내 육성 골드키위 ‘감황’ (브랜드명 하트골드) 특산화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육성 골드키위 감황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특산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지역농협 및 대표 농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하트골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균일화를 위한 수확 및 상품 기준 설정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표준규격 마련 ▷전용 소포장재 제작 등 안정적인 시장 진입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골드키위 감황 품종의 부가가치 향상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 단일 브랜드 하트골드를 개발했다. 주 재배지역인 애월, 조천, 성산일출봉농협에 기술을 이전해 하트골드 브랜드로 감황 39t을 첫 출하했다.

감황은 2016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해 2020년 제주지역에 첫 도입됐다. 짙은 황색에 약간 편평한 모양으로 과중 140g 내외 대과종으로 후숙 후 18브릭스의 고당도로 생산된다. 10월 상·중순 수확하면 지난해 제주도 내 재배면적은 14.3ha 규모다.

키위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제주지역의 대표 특화작목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은 골드키위를 선호하면서 도내 골드키위 재배 면적이 4.16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라일보 6**

(뉴제주일보: 2024년 4월 16일)

○ [기고]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14면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난해 4월 이상 기온으로 과일이 익기도 전에 잎이 모두 떨어져 제대로 수확할 수 없었던 포도, 여름철 폭염으로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다 썩어 폐기해야만 했던 육지부의 복숭아와 자두. 전국 농민들이 '기후폭탄', 즉 폭우, 가뭄, 냉해 등 온갖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농업은 기후에 아주 민감한 산업이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의 특성상 주변 환경은 곧 식물의 생존과 연관된다. 기후 위기는 비단 한국의 일만은 아니다. 칠레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숲에 화재가 발생해 양봉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캄보디아에서는 농산물 생산량이 30% 가량 감소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고온과 집중호우로 두류작물의 작황 부진과 병해충 발생 피해를 받았다.

기후 위기는 농업의 위기이며 이는 식량의 위기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양성년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시스템은 기후 위기에 취약하다. 작물이 온갖 병해충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뭄, 고온 등의 스트레스에 강하거나 변화된 기후 생태에 적응하는 다양한 품종을 선발하고 육성해야 한다. 두 번째, 파종 및 이식시기를 조절하고 생산성이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세 번째, 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토양 수분 보존 기술이나 홍수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침수, 침식 및 양분 용탈 방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MO 규제 완화로 종자 기업에 의해 씨앗 독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응해 식량 주권 및 농민의 종자권, 생물 다양성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416

뉴제주일보 14

(제주매일: 2024년 4월 16일)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4-14호(2024.4.15.)

여건변화 대응 농업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보급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 순길이 1~1.5cm 정도 더듬이병 발생 및 우려되는 과원은 적용약제로 방제 실시

■ 만감류

- 온도관리: 백화기~만개기 최고온도 25℃ 이내
- 물관리
 - 개화기~만개기: 10a당 15~20mm 7일 간격 관수
 - 만개기~종화기: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절수
- 기계유유제 이용 응애 방제, 봄순 총채벌레·진딧물 예찰 및 방제

■ 초당옥수수

- 터널재배 포장은 생육상황에 따라 앞꺼내기 작업 시작

■ 미니단호박

- 온도에 따른 터널뚫기 작업 실시. 최저기온 11℃ 이상 유지 필요

■ 쪽파

- 온도 상승에 따른 과번무 주의
-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총채벌레 등 예찰 방제

■ 메밀 및 기장

- 수확기가 장마기와 겹치지 않도록 파종시기에 주의
- 파종기: 메밀 3월 하순~4월 중순, 기장 4월 상순~5월 상순
- 파종량: 메밀 10a당 12kg, 기장 10a당 4~5kg(흩어뿌림 기준)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4.16.
제주매일.4

(제주매일: 2024년 4월 16일)

○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일손 부족 대안으로 자리매김-1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일손 부족 대안으로 자리매김

서귀포시 수요조사 결과 올해 총 962명 전년 대비 1.5배 늘어
2022년 운영 56명 비하면 16배...이탈 없고 적응도 빨라 호평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는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2024년 하반기(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4농가에서 466명을 신청했다.

4.16
제주매일 1면
외국인 계절근로자(B-8, 5개월) 121농가 443명, 외국인 단기취업

계절근로(C-4, 3개월) 3농가 18명으로 집계됐다.

또 서귀포시가 지난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1차) 승인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138농가·2농협 496명(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주위미농협 50명, 대정농협 30명 포함)을 합치면 올해 한해동안 농가가 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962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한해 서귀포시 지역에 배정된 80농가·1농협 386명에 비해 149%

증가한 수치다. 비자 발급 거부 등으로 인해 실제 도입된 208명(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156명, 베트남 남단성 MOU 초청 52명)과 비교하면 363%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22년 배정 54농가 131명, 운영 27농가 56명과 비교할 경우 각각 6.3배, 16.2배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지 이탈 등 당초 우려했던 현상이 그다지 없는데다 이들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농사에 적응, 좋은 반응을 얻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23년 제주위미농협은 공공형 외국

인 계절근로사업자를 통해 베트남 남단성 근로자 41명을 들여와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0여농가에 인력을 제공, 호평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 6월께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참여 농가 및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선정, 7월부터 농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고권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잡았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두성 기자

(제주매일: 2024년 4월 16일)

○ 청정 식재료 음식과 한·중·일 맥주의 향연-6면

청정 식재료 음식과 한·중·일 맥주의 향연

19일부터 식품대전...도내 1차 산품·가공식품 선배

10개 맥주 브랜드 37종 판매·시음...부대 행사 다채

제주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도내 맥주기업의 홍보·판매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19~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With 한·중·일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참가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100개 업체·120개 부스가 참여한다. 도내 유명 1차산품, 가공식품 및 외식업체와 베이커리, 디저트 등 제주식품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 식품 기업들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4.16
제주매일 6면
특히 중국, 일본의 유명 맥주 37개

의 '한·중·일 삼국 맥주축제'가 함께 열린다.

맥주축제에는 제주 4개 브랜드(제주맥주, 맥파이, 탐라에일, 고부루비어), 중국 2개 브랜드(칭따오, 하얼빈), 일본 4개 브랜드(삿포로, 아사히, 산토리, 기린맥주) 등 총 10개 브랜드가 참가해 37종의 맥주를 판매하고 시음 기회를 제공한다. 맥주와 어우러질 제주안주판, 맥주게임, 플리마켓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준비한다.

또한 도내 식품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바이어 초청 구매·수출상담회가 진행되며, 제주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푸드테크 컨퍼런스'를 통해 제주 식품산업의 전망과 트렌드를 조망한다.

20일에는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현장 촬영을 통해 요리사 정호영, 송훈, 정지선이 출연해 현장 쿠키쇼를 진행하고 본인의 메뉴를 가장 빨리 파는 요리사를 선정하는 대결을 벌인다.

이외에도 19일에는 이원일 셰프와 'MBC 싱글빙글쇼'를 진행했던 김혜영 씨가 나서는 현장 라이브방송이 열린다. 또한 행사일 오전 10시에 선착순 100명에게 경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어린이 동반 고객을 위한 특별선물과 현장 구매 인증 시 경품을 제공하는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병근 기자

(제주일보: 2024년 4월 16일)

○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3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제주농협, 내달 마늘 수확에 5000명 모집 나서...고령농 등 지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본부장 윤재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제주 마늘 수확을 위한 무상 인력 지원에 나선다.

제주농협은 다음 달 ‘국민과 함께하는 마늘 수확 일손 돕기’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제주 마늘 재배 면적은 1088ha로, 수확에 총 3만3000여 명이 필요하다.

농협은 농가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마늘 수확 봉사를 할 인력 5000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주요 기관, 단체, 기업 200여 곳에 협조문을 발송해 봉사를 인력이 모이면

5월 1~24일 대정읍, 안덕면, 한경면 등 서부지역에 먼저 지원하고, 남은 기간은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 농가들이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수확 봉사 참여자들에게 이동 지원, 점심, 장갑 등 봉사용품, 안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행정 및 기관·단체 관계자 1300명, 군부대 장병 1289명과 농협 임직원 및 육성 조직 회원 877명, 대학생 554명, 법무부 직원 270

명 등 총 4290명이 참여해 208농가 55.5ha의 마늘 수확을 도왔다.

도내 마늘 재배 면적은 2013년 3394ha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최근 5년간 재배면적은 2019년 1964ha, 2020년 1879ha, 2021년 1600ha, 2022년 1260ha, 2023년 1242ha다.

이규식 제주농협 농촌지원단장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들에게 함께하는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주리 기자

(한라일보: 2024년 4월 16일)

○ 월동채소 과잉생산 조절 농가에 지원금 준다-6면

월동채소 과잉생산 조절 농가에 지원금 준다

제주도, 36억 들여 사업 추진
내달 24일까지 읍면동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월동채소 과잉 생산을 조절하기 위한 밭작물 토양 생태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를 4월 16일부터 지정된 품목을 재배하는 밭 6만원을 지원하는 발

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도는 올해 36억원을 투입해 845ha를 지원하며, 참여 신청을 오는 5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지정 품목은 수단그라스, 호밀, 사료용 옥수수, 유채, 녹비용 보리 등 녹비·사료작물 9개 품목과 팥, 녹두, 가을메밀, 밀, 기장 등 식량

작물 5개 품목이다. 최근 콩 생산량 증가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면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 농가 중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지역농협 계통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 조건은 최근 2년(2022~2023) 연속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이며 ▷재배면적 신고 ▷정부 채소 가격안정제 참여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농가는 내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해 휴경하거나 지정된 작물만을 재배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오는 11월에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적정하게 사업을 이행한 농가에 12월 중 행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